



(2026년 10월 8일 목요일 16면)

손병화 송파구의회 의장, “어르신 복지 향상 최우선”



손병화 송파구의회 의장이 '제30회 노인의 날 기념 송파구 어르신 한마당'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.

송파구의회(의장 손병화)는 지난 2일 오전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'제30회 노인의 날 기념 송파구 어르신 한마당'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했다.

축사에 나선 손병화 의장은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했다. 손 의장은 “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”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했다. 이어 “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삶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”이라고 강조했다.

아울러 손 의장은 “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송파구와 나라의 발전은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”이라며 “송파구의회 27명 의원 모두는 어르신

들의 지혜를 잘 따르고, 경로당을 비롯한 일상에서 어르신들을 더욱 따뜻하게 돌보고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다짐했다.

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경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했다. 기념식은 흥익태권도 시범단과 퓨전국악 등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. 이어 표창장 수여와 기념사, 축사, 초대 가수 공연이 차례로 진행됐다. 현장에는 어르신 작품 전시와 건강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들어섰다.

송파구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다.

홍준성 기자 / roff1116@naver.com